

오피니언 리더가 참여하는 '인터넷 패널'

따끈따끈한 여론 지면에 신속반영

인터넷 패널이란 광주일보가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구성된 인터넷 패널은 전문가 그룹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지역민들의 속내를 대변하게 된다.

독자를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지역 밀착형 지면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만큼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패널은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 외에 일반 기사와 사설·칼럼, 편집 형태 등을 평가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광주일보의 고품격 지면을 만들어나가는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지면 전략 결정 뿐만 아니라 광고·판매·배달에 대한 지적 및 건의 사항도 수용, 수정하고 보완해 질 높은 신문을 만들기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활동중인 인터넷 패널은 모두 497명. 구체적으로는 ▲경제계 126명 ▲교육계 84명 ▲공무원 78명 ▲의료계 36명 ▲문화계 34명 ▲시민·사회단체 27명 ▲주부 25명 ▲정치인 24명 ▲농업 10명 ▲법조 10명 등이다.

패널이 이메일을 통해 각종 설문 자료를 넘겨 받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견 표시를 요청받으면 광주일보 홈페이지에 개설된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여론 조사 결과는 즉시 집계된 뒤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반영된다. 응답 시간은 최소 1~2분에 불과하고, 집계 시간도 최소 20분 이내로 신속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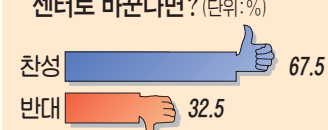
어떻게 활용됐나 독자들이 궁금해하거나 이상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묻고 그 결과는 신문에 소개됐다. 우선 지난해 안공된 광주전시컨벤션센터의 명칭을 놓고 지

독자들은 기사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떤 기사를 읽고 싶을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신문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광주일보는 독자가 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신문을 만들기 위해 국내신문 최초로 '인터넷 패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본보 국내신문 최초 운영 김대중 센터 명칭도 바뀌

▽ 지금까지 실시한 주요 인터넷 패널 여론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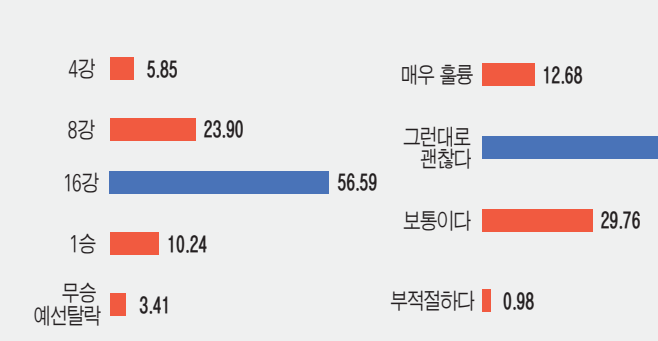
■ GEXCO 명칭을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바꾼다면? (단위: %)



■ 초중학생 일기장 검사폐지에 대한 견해는?



■ 2006 독일월드컵 예상 성적 (단위: 점)



인터넷 패널 명수

Table with 2 columns: Category and Count. Includes 경제계 (126), 교육계 (84), 공무원 (78), 의료계 (36), 문화계 (34), 시민·사회단체 (27), 주부 (25), 정치인 (24), 농업인 (10), 법조인 (10), 언론인 (8), 광고·출판계 (8), 연구원 (7), 체육인 (5), 종교인 (3), 건축사 (3), 사회복지사 (2), 기타 (7명: 취업준비생 1명, 학생 1명, 감정평가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미확인 3명), 총계 (497명)

패널들이 생각하는 '인터넷 패널'

시민의 목소리 반영 노력 돋보여 효율적 시스템 위해 개선해 나가야

전문가 그룹인 인터넷 패널은 패널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패널들은 우선 독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신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패널들은 이벤트성 제도라든지 모양새 갖추기 시스템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철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명철 광주지방법원 판사는 "여러 차례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독자들의 신속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제도라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특히 이메일을 통해 각종 설문 자료를 넘겨 받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견 표시를 요청받는 방법은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것.



박은서 <한의사>

박은서 한의사도 "신속한 문제 제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객관화시켜 지면에 반영하는데 있어서는 참 좋은 제도"라고 했다. 하지만 단순 설문조사가 아니라 패널 각자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안 이슈에 대한 독자들의 100% 의견 등을 예로 들었다.



윤봉란 <YMCA간사>

윤봉란 YMCA 간사도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보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떻게 답을 것이냐는 방법론에서 단순한 설문 조사 방식에 그친다면 여론 조사 기구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패널들의 의견을 차별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윤 간사의 생각이다.



박용현 <조선대 법대 교수>

박용현 조선대 법대 교수는 "단순한 답을 요구하는 질문 수준에서 그치면서 전문가 그룹이라는 패널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종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여론의 흐름이나 향후 대안·변화를 읽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독자와 신문 '의사 소통 창구' 핀란드 등 선진국 적극 활용

인터넷 패널 제도 등을 통한 독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은 세계 주요 나라들에서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 북동부 30km 외곽에 위치한 도시인 Tuusula에서 창간된 KESKI-UUSIMAA라는 신문은 철저한 지역 뉴스에 치중하는 편집 방향을 수립했다.

독자들에 대한 정보 서비스 차원에서 문화·경제·자동차·여행·패션 등을 주제로 주 1회씩 섹션을 발행하고 있으며, 독자 투고의 경우 편지·e메일뿐만 아니라 모바일폰을 통해 전달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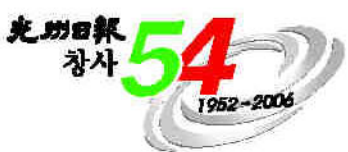
는 현안에 관한 짧은 의견도 접수, 같은 면에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게재한다. 이 신문의 시장 점유율은 Tuusula에서는 60%, 인근 지역에서는 40%를 상회한다.

특히 신문 발행과 관련해서는 독자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컨대 독자 200명을 인터넷 패널로 두고 1년에 4~5회씩 편집 방향이나 기사 내용 등은 물론 지역 사회 전반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면에 반영하는 것. 그 밖에도 시장 조사 회사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대규모 독자 조사를 실시해 독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노력한다.

핀란드 지역의 또다른 신문인 'Aamulehti'도 전국 뉴스·국제 뉴스도 취급하지만 철저하게 지역 뉴스에 치중하고 있다. 매일 한 면을 할당, 독자 의견을 게재하는 것 외에도 두 달에 한번씩 10명의 독자 대표 모임을 열어 신문의 보도 내용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노르웨이의 'Adresseavisen'이라는 신문은 오피니언에 2면을 할애하고, 독자들의 질문에 답해 주는 코너도 있다. 독자들의 질문에만 답하는 전문 기자가 따로 있을 정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光州日報 창사 54週年을 祝賀합니다

民主黨 光州·全南道黨 國會議員 및 地域委員會 一同